

내신 기출

문학 창비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문학 창비-하편>>

<차례>

Ⅲ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2.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 *시조 세 수-----1쪽 (30문제)
- *산유화-----11쪽 (31문제)
- *이생규장전-----22쪽 (55문제)
- *엄마의 말뚝 2-----53쪽 (39문제)
- *이옥설-----74쪽 (27문제)
- *북어 대가리-----83쪽 (42문제)

3. 한국 문학의 변화와 발전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02쪽 (39문제)
- *제망매가, 동곡칠가 4-----130쪽 (20문제)

Ⅳ 문학과 삶

1. 문학의 가치

- *별 헤는 밤-----139쪽 (33문제)
- *입동-----151쪽 (33문제)
- *수오재기-----169쪽 (40문제)

2. 문학의 생활화

-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187쪽 (35문제)

▶정답-----208쪽

▶해설-----211쪽

(버전: 2020.06.24.) 이번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아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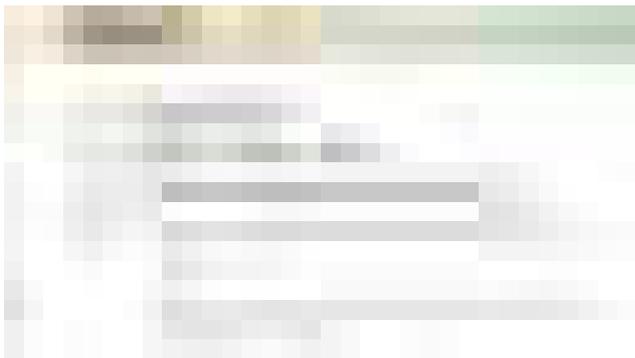
<백설이~>



<잔 들고 혼자~>



<님이 오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梅花)는 어니 곳이 뛰엿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나 호노라.

-이색

(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몬내 묘하호노라.

-윤선도

(다)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
수가액(以手加額)하고 오논가 가나가 건년 산(山) 바라보니
거머헛득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 님빅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준 디
므른 디 곱희지 말고 워령총창 건너가서 정(情)엿말 흐려
하고 겻눈으로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굴가 벽긴 주추리 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흥허 낮이런들 늣 우일 번쾌라.

-작자 미상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 (가)~(다)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3장 6구의 평시조이고, (나)는 연시조의 일부이다.
- ② (가)와 (다)는 절제와 여운의 맛을 준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중장이 길게 확장되어 정형시의 형식적 규칙을 지키고 있다.
- ④ (다)의 형식은 후대에 (나)의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 ⑤ (가)~(다)는 모두 3음보의 양식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임과 화자가 서로 오해하게 된 계기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임을 만나기 위해 한바탕 소란을 피운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나타나지 않은 임에 대한 화자의 서운함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임이라고 생각한 대상이 임이 아니었음을 깨달는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굳게 믿은 임이 자신을 속인 대상이었다는 것을 안 화자의 실망감과 분노가 드러나고 있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3. (나)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새요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지네

-김소월, '산유화'

- ① (나)는 비교와 대칭, <보기>는 반복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나)는 '뫼', <보기>는 '새'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 시이다.
- ③ (나)의 화자는 자연을 매우 사랑하며, <보기>의 화자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보기>는 자연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 ⑤ (나)와 <보기> 모두 화자의 고독을 드러내는 시어가 쓰였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②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3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 중장에서 변형하여 신선함을 주고 있다.
- ④ 자연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각운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자연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과 화자가 서로 오해하게 된 계기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임이라 생각한 대상이 임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화자의 실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일상적인 사물을 의인화하여 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④ 만나기로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임이 화자를 속였음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임을 신뢰하는 화자를 희화화하고 있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① (가)는 3장 6구의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운 노래이다.
- ②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다)는 3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에 비해 중장이 비약적으로 길어졌다.
- ④ (다) 과장되고 장황한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가), (나)는 절제의 미가 (다)는 해학미가 느껴진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7. (나)에 나타나 있는 주제 의식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 ① 興亡(흥망)이 流水(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신 客(객)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② 추성 진호루(鎭胡樓) 맞고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때)를 모르나다
- ③ 古人(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古人(고인) 못 뵈
古人(고인)를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네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④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 態(태) 업슨 流水(유수) | 로다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임즈 업슨 明月(명월)이로다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 ⑤ 盤中(반중) 早紅(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袖子(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흐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시 글노 설워 흐느이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8. ㉠와 ㉡의 상황과 관계 깊은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 | | |
|--------------|------------|
| a | b |
|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 고립무원(孤立無援) |
|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진퇴양난(進退兩難) |
| ③ 고립무원(孤立無援) | 이심전심(以心傳心) |
| ④ 물아일체(物我一體) | 고립무원(孤立無援) |
| ⑤ 우국충정(憂國衷情) | 진퇴양난(進退兩難) |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9. <보기>와 (다)의 공통점을 쓰시오.

<보기>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매화(梅花)는 어니 곳이 뛰엿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나 흐노라.

-이색

(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흐노라.

-윤선도

(다)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가액(以手加額)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년 산(山) 바라보
니 거머핍득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 님빅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즌 디 무른 디 고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엿말
흐려 하고 겹눈으로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
날 골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횡혀 낮이런들 늬 우일 번흐괘라.

-작자 미상

(라)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

장다리
노오란 텃밭에

[A]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아지랑이

계산고등학교 (인천)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백설이 즈자진 골에」는 저물어 가는 고려의 운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한 작품이다.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 세력은 날로 커지고 고려 왕조는 점점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 고려를 지킬 충신을 기다리는 작가의 심정이 작품에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백설’은 고려의 유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 ② ‘골’은 고려의 신하들과 신흥세력 간의 세력 다툼으로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험하게 일어나는 ‘구름’은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세력으로 의미한다고 봐야겠지.
- ④ ‘석양’은 점점 기울어가는 고려의 운명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 ⑤ ‘매화’는 고려에 충성하며 나라를 지키려는 충신을 의미한다고 봐야겠군.

서령고등학교 (충남)

11. <보기2>를 바탕으로, (다)와 <보기1>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두터비 푸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건년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씨 잇거늘, ㉢가슴이 금
흐죽여 풀덕 썬어 내듯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랜 널식만정 에헐질 번흐괘라.
-작자 미상

<보기2>
(다)와 <보기1>의 시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구조상 (다)의 ㉠~㉣과 <보기1>의 ㉠~㉣은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이는, (나)는 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오직 않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보기1>은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① ㉠이 그리움의 대상이라면, ㉡는 비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이라면, ㉣는 겸손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이 시적 화자의 생각이라면, ㉥는 시적 대상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면, ㉢는 재물과 권력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이 자조적인 표현이라면, ㉡는 자신을 합리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산고등학교 (인천)

12. (나)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초암(草庵)이 적료(寂寥)하니 벗 업시 혼자 안조
평조 한납이 백운(白雲)이 절로 존다
언의 뉘 이 죠흔 뜻을 알 리 잇다 흐리오
- ②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세우(細雨)되어
님 자는 창(窓) 밧괴 불거니 뿌리거니
날 닛고 기피 든 줌을 깨워 볼가 흐노라
- ③ 구름이 無心(무심)튼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써이셔 任意(임의)로 돈니면셔
구티야 光明(광명)헌 날빛출 쓰라가며 덤느니
- ④ 쏜은 든눈 대로 듯고 벗은 썰 대로 썬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러 불 제,
어디셔 길 가는 소님니 아논 드시 머무논고
- ⑤ 山(산)은 넷 山(산)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주야)에 흘은이 넷 물이 이실쏬야.
人傑(인걸)도 물과 鬪(투)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계산고등학교 (인천)

13. (다)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초장> ① 임이 온다는 생각에 들뜨고 설렘.</p>	→	<p><중장> ② 임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함. ③ 임을 빨리 만나고 싶어 애 가담. ④ 임이 아니라 삼대였다는 사 실에 견연찍어 함.</p>	→	<p><종장> ⑤ 남들이 보지 못했으 리라는 것에 안도함.</p>
--	---	--	---	--

계산고등학교 (인천)

1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이전의 평시조와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사설시조는 3장 6구라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서 2구 이상이 늘어난 파격을 보인다. 내용적으로도 관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애환을 다루면서 거리낌 없는 자기 폭로, 사회 비판 의식 등의 담겨 있다. 또한 고유어, 한자어, 등에 구애 받지 않는 다채로운 표현과 해학적 묘사, 언어유희, 재담 등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형상화한다.

- ① 착각을 인해 벌어진 상황을 해학저극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시간적 순서에 따른 화자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한자어를 부부적으로 구사하면서 고유어 위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4음보 4행시라는 양식을 변형시켜 시상을 자유롭게 표출해내고 있다.
- ⑤ 종장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현실에서 겪는 삶의 애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계산고등학교 (인천)

15. (라)의 [A]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예문여자고등학교 (부산)

16. (라)의 율격(음보율)에 대해 쓰고, [A]처럼 배열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를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지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 <보기>의 밑줄 친 요소에 근거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문학 작품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문학 작품의 내용 요소에는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인물의 가치관 등이 있고, 형식 요소에는 구성, 문체, 시점, 연과 행, 운율, 표현 기법 등이 있다.

- ① 처음과 끝이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
- ②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다.
- ③ 시적 화자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
- ④ 각 연에서 종결 어미 '-네'가 반복되어 각운의 효과를 얻는다.
- ⑤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적 간결성과 음악성을 확보한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렇게'로 해석될 경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저렇게'로 해석될 경우 존재와 대상의 교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③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이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보여 준다.
- ④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꽃'은 자연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 ⑤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될 경우 '거리'는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3. 위 시와 <보기> 시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 /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잇는 것 또한 그렇게 /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 지는 건 쉬워도 / 잇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 ① 위 시와 <보기> 시는 모두 변형된 수미상관 수조를 갖는다.
- ② <보기> 시는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다.
- ③ 위 시에서 수미 상관의 구조는 자연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감정을 드러낸다.
- ④ <보기> 시의 수미 상관의 구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잇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 ⑤ 위 시와 <보기> 시는 종결어미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을을 '갈'로 줄여 표현한 시적허용을 통해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한다.
- ② 2연의 행 배열은 산과 산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강조한다.
-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의 모습을 통해 존재가 지니는 근원적인 고독감을 드러낸다.
- ④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원리를 보여준다.
- ⑤ '산에는√꽃 피네√꽃이 피네'와 같은 3음보를 한 행에 배열하거나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창동고등학교 (서울)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인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②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나타나 있다.
- ③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어를 반복하여 감정을 격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꽃이 피고 지는 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6. <보기>는 위 시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시의 구절 중 (㉠)는 시의 간결성과 운율을 고려한 표현으로 일상적 언어에 변화를 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감정을 (㉡)에 이입하여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창동고등학교 (서울)

7. 위 시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건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 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 최영미, <선운사에서>

- ① 위 시와 <보기> 모두 수미 상관의 구조를 이룬다.
- ② <보기>와 달리 위 시에는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위 시와 <보기> 모두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위 시와 <보기> 모두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가 같다.
- ⑤ 위 시와 달리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에'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의도적인 행 바꿈을 통해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각 행의 길이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시적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민요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⑤ '-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인천고등학교 (인천)

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보기>

수미상관은 문학에서 활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로 주로 시의 형태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데,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형태를 띠는 형식을 말한다. 이 기법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리듬을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된다.

- ① 동일한 통사 구조를 통해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어.
- ② 시행의 길이를 대비시켜 시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변화무쌍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어.
- ③ 1연과 4연에서 ‘꽃’이 피고 지는 연속성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④ 1연의 ‘피네’, 4연의 ‘지네’만 다를 뿐, 1연과 4연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를 이루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
- ⑤ 반복되는 호응 구조와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피는 ‘꽃’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하고 있어.

인천고등학교 (인천)

10. 윗글의 밑줄 친 ㉠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어가 나타난 것은?

- ① 넓은 별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열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정지용, 「향수」
- ②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김소월, 「초혼」

- ③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 강물이 흐르네. / 돌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뻗질한 / 은결을 도도네. /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
 -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 ④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파르라니 깎은 머리 /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 조지훈, 「승무」
- 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무 /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 신경림, 「목계장터」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유화>는 단순서술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네’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조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관조-적 觀照的 (관형사·명사)

1.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또는 그런 것.
2. 행동력이 없이 무관심하게 보거나 수수방관하는. 또는 그런 것.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① 산은 / 구강산(九江山) /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 두어 송이 / 송이 버는데
 붉은 녹아 흐르는 / 옥 같은 / 물에
 사슴은 / 암사슴 /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 ② 가슴은 붉게 멩들고 / 꿈은 무너지고 / 고독은 가득 차올라 혼자 사는 노인이다 / 무거운 한숨 /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봄비 내리던 밤에 / 서럽게 지는 적목련
 - 박인걸, 「적목련」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④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더라. / 누구와 만나 /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더라 / 송구름 날린 하늘이더라.
 - 고은, 「순간의 꽃」

⑤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고 생각하라. /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김소월, '산유화'

광덕고등학교 (경기)

12. 위 시의 운율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의 음보율
-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
- ③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 ④ 문장 끝에 동일한 음운을 배치
- ⑤ 동일 음절이 반복된 음성상징어 사용

영신여자고등학교 (서울)

13. 위 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비슷한 연을 배치하여 운율감 획득, 주제 강조, 형태적 안정감, 구조적 통일성을 획득하고 있다. 주제 강조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기>의 단어를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자연, 인간

서울고등학교 (서울)

14.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화자가 동경하는 '꽃'이라는 대상과 화자의 분신인 '새'를 통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 잘 구현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감정이 1, 2연에서 절제되어 나타났다가 3연에서 격렬하게 노출되며 4연에서 다시 감정의 절제가 드러난다.
- ③ 각 연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감정이 적절히 통제되며 시적 대상과의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의 전반적 어조 형성에 기여한다.
- ④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노래했다는 점과 일정한 위치에서 동일한 음운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와 유사하다.
- ⑤ 한국 문학의 전통적 가락인 3음보의 의도적 변형 및 배치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독자들은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효과를 얻는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이생규장전

◆핵심 정리

장르	한문 소설, 전기 소설(傳奇小說)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시절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 시간적 배경: 고려 공민왕 때 • 공간적 배경: 개성
제재	'이 서생'과 '최 여인'의 사랑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남. •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이 드러남. •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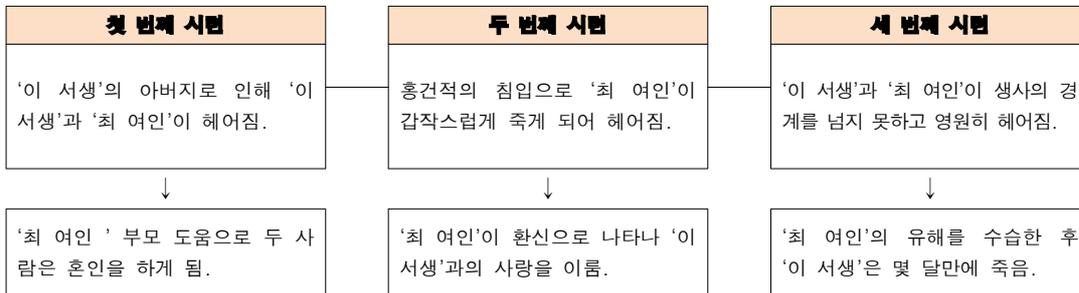
◆전체 구성

발단	'이 서생'이 '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눔.
전개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이 서생'의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함.
위기	홍건적의 침입으로 '최 여인'이 죽게 됨.
결정	'이 서생'과 '최 여인'의 환신이 재회하여 행복하게 지냄.
결말	'이 서생'과 '최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함.

1. 작품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제자가인(才子佳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서생'은 용모가 준수하며 재주가 뛰어남. • '최 여인'은 자수와 시문에 능하며 매우 아름다움.
비현실적인 상황과 사건	죽은 '최 여인'이 환생하여 '이 서생'과의 인연을 이어감.
한문 문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 문체의 미사어구(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서술함. • '최 여인'이 '이 서생'과 작별하며 이별과 죽음의 슬픔을 한시로 표현함.

2. 주인공이 겪는 세 가지 시험과 그 대응



3. '최 여인'의 환생이 갖는 의미

- '이 서생'과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임.
-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냄.

4. 삼입력 노력의 기능

정서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 여운을 줌. •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함.
서사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 •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암시함. •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일으켜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함.

5. 비극적 결말에 반영된 작가 의식

『이생규장전』은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여타 고전 소설과는 달리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 이는 작가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부정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사육신의 죽음 이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냈던 김시습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6.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사관

작가는 이승과 저승의 질서에 따라 '이 서생'과 '최 여인'이 다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7.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의 공통점

<p>『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취유부벽정기」를 전함.</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background-color: #f4b084;">작품들의 공통점</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td> </tr> </table>	작품들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작품들의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킴. • 적극적이며, 욕망을 긍정하는 인물상을 구현함. • 애민적(愛民的) 왕도 정치 사상이 드러남. • 유교, 불교, 도교의 통합을 지향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농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툇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

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란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 ②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약속의 매개물을 통해 재회하게 된다.
- ③ 두 사람은 전란 중에 만난 동포의 도움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다.
- ④ 최 씨는 이생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있다.
- ⑤ 두 사람은 목숨보다 절개를 지키고자 한 최 씨의 선택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에 나타난 전기적인 내용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1. 윗글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만을 쓸 것.
 2. 작품의 주제를 언급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흥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흥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줄거리>

이생은 귀신이 되어 돌아온 최 씨와 함께 제물을 찾아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살아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나누며 지낸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둬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견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A]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원주고등학교 (강원)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삽입을 통해 서술 방식의 통일성을 획득한다.
- ②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③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를 드러낸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7.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보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때가 있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③ 최 씨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이생이 최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⑤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본문에 삽입된 시는 최 씨가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좋겠어.

원주고등학교 (강원)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② ㉡ : 두문불출(杜門不出)하는 인물의 세계관을 나타낸다.
- ③ ㉢ : 인물의 유교적 도덕규범을 담은 세계관을 보여준다.
- ④ ㉣ : 전기적(傳奇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
- ⑤ ㉣ :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불교적인 무상관이 나타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9. 빈 칸에 들어갈 갈등의 종류를 서술하고, 내용 흐름상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 :

동탄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의 삽입시 [A]에서 (1)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 쓴 후, (2) 거기에 드러난 '최 씨'의 처지와 (3) 삽입시의 기능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을 그대로 쓸 것.
- '최 씨'의 처지를 시구에 맞게 서술할 것.
-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 '최 씨'의 처지, 삽입시의 기능을 각각 1가지씩만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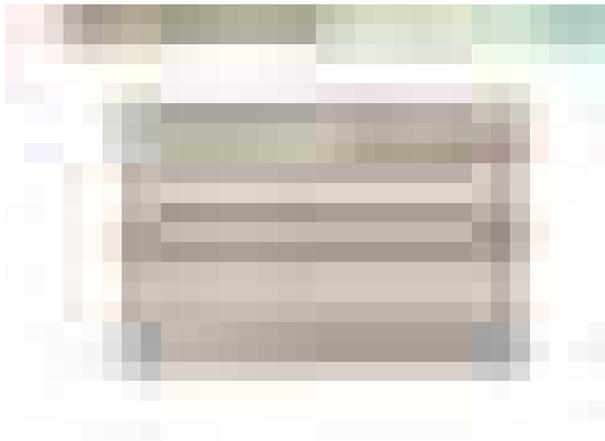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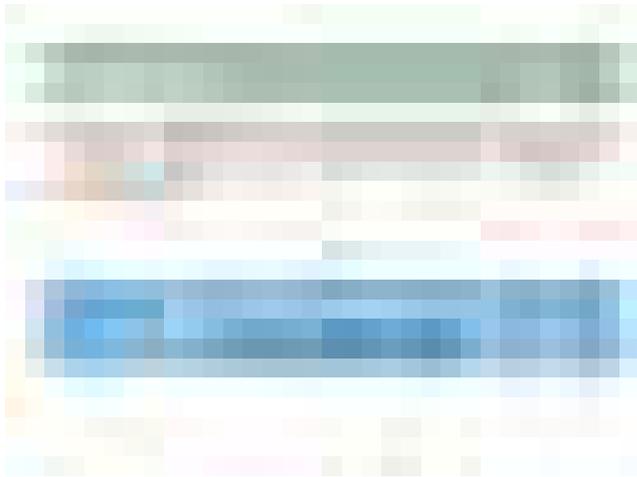
모락고등학교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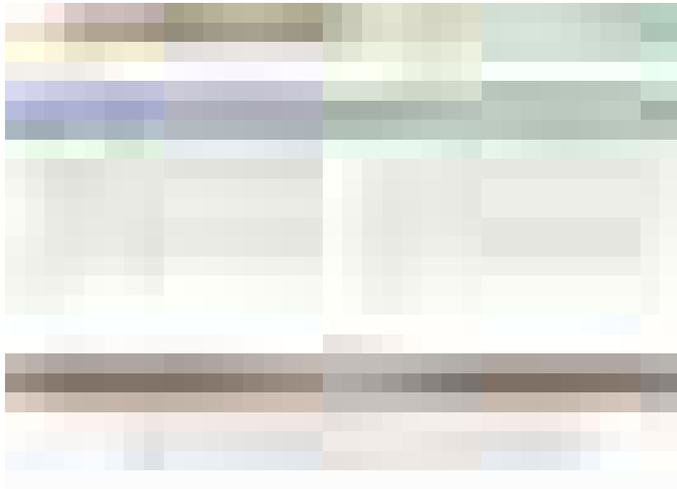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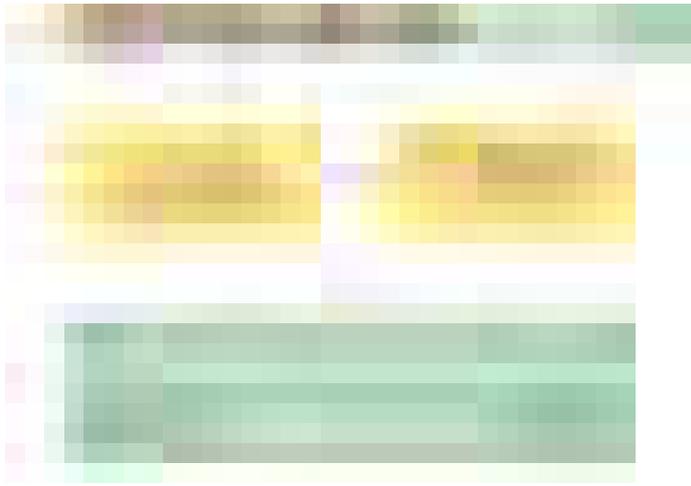
1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최 씨의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④ 대부분의 고전 소설의 결말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말과 행동 및 생각까지 서술한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http://chongmangug.co.kr>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뿜어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सू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꽂꽂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

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 먹었다. 이걸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나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역을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2’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참상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전환시켜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와 서술자의 다양한 과거 경험들이 보여주기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올케는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오빠’를 화장하게 되었다.
- ② 나는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오빠’의 유골을 뿌린 적이 있다.
- ③ 어머니는 악몽으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되었다.
- ④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 ⑤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4.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도 좋겠군.
- ② 영이: 병원을 배경으로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의상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 ③ 순이: 간호사들의 설득에 따라 안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내야겠어.
- ④ 한이: 간호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침대에 묶는 극적인 상황에 어울릴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해야겠어.
- ⑤ 통이: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환자이긴 하지만 과거에 험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광기에 가까운 연기를 하도록 지시해야 될 것 같아.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간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군.
- ②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군.
- ③ 병원에서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군.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선과 악에 대한 역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군.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6. ‘오빠’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빠’는 학교에서는 수재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다. 한때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때문에 6.25 전쟁 때,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놓이게 되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인민군이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다리만 겨냥하고 총을 쏘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두리째 인생이 망가져버린 비운의 인물이다.

- ① 어머니의 입원을 계기로 모녀에게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
- ② ‘오빠’에 대한 원통함과 집착이 어머니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되살아 난 것이다.
- ③ ‘오빠’가 죽어가며 느꼈을 아픔이 어머니의 다리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④ 어머니와 나는 ‘오빠’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 ⑤ 윗글은 어머니와 딸이 ‘오빠’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처를 견디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족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상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

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 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세 편의 중단편들로 이루어진 연작소설 중 두 번째 작품이다.
- ② 연작 속 세 작품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편이라도 빠지면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 ③ 작가 박완서는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 ④ 제목 ‘엄마의 말뚝’은 아들의 죽음으로 가슴에 말뚝처럼 박힌 엄마의 한을 의미한다.
- ⑤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적인 보편성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서술 전략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자. ㄴ.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자. ㄷ.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ㄹ.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서술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자. ㅁ. 사건 전개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자. |
|--|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당곡고등학교 (서울)

9.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해, 강화도에서, 갈 수 없는 고향 쪽으로 뺏가루를 날리는 일을 의미한다.
- ② 어머니가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 ③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선영에 묻히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한을 푸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④ 어머니가 나에게 ‘그 짓’을 부탁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다.
- 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형식적 구호로만 행세하고 있는 ‘통일’을 생생하게 꿈꾸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을 감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을 2가지 고르면?

- ① 문학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논리적인 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면 곤란하다.
- ②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작품을 감상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히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해야 한다.
- ④ 작품을 수용할 때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⑤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해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곡고등학교 (경북)

11.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엄마의 증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② 자신이 죽어서나마 먼저 죽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머니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는 상태이다.
- ③ 한국 전쟁으로 신체적 질병을 얻은 유공자들에게 국가적 보상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 ④ 어머니의 광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⑤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한으로 남아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옹호(擁護)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없는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십시오, 그 몫을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침내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天壽)15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流動食)16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 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중략>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알려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알려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놓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주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가매장(假埋葬)22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할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했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25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사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26하러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A]**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B]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다.

목동고등학교 (서울)

1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어린 시절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품 속에 존재하는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목동고등학교 (서울)

19. 밑글 중 [A]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후에 시신을 화장하여 뺏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날려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유언
- ②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오빠의 뺏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렸던 일
- ③ 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는 어머니의 태도
- ④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어머니가 가진 의지의 표현
- ⑤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목동고등학교 (서울)

14.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 [B]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우리나라의 분단은 이제 하나의 기정사실입니다. 분단은 오래 전에 피를 흘리기를 멈추고 굳은 딱지가 되었고 통일을 꿈꾸지 않은 지도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통일이란 말이 도처에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분단의 고통을 겪은 자의 애절한 꿈으로서가 아니라 한낱 구호로서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구호를 만들어 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막 난 채 아물어 버리면 다시는 이를 수 없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이 구호에 봉사하느냐, 이런 숨겨진 처절한 아픔 편에 서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이 부당하게 겪는 아픔과 슬픔, 몸부림, 그러면서도 결코 단념할 줄 모르는 그들의 꿈,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정신을 쥐어뜯어야 할 만큼, 우리를 일률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구호의 최면술은 날로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2’ 작가의 말 중

- ① 작가는 어머니의 투병 중인 모습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 같아.
- ② 치유되지 않는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 분단이 고착되어 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 ③ 오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분단의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 것 같아.

- ④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감을 바탕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상처가 토막 난 채 아물어 버리길 간절히 원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한 오빠의 비극적인 죽음은 어머니의 평생의 한으로 우리 민족의 비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목동고등학교 (서울)

15.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 1,2,3’의 제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 ②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한
- ③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의 의지
- ④ 어머니가 세운 기준으로부터 자립해야한다는 ‘나’의 정신적 구속감
- ⑤ 죽어서라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의지

목동고등학교 (서울)

16. 밑글을 읽은 독자는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고찰한 후 정리해 보았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상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밑줄 친 부분	대상
㉠	그는	
㉡	그놈	
㉢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 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⑥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 ② 대조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생각의 대상을 점차 좁혀가며 구체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 ④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슷한 다른 것에 유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잘못은 가능하면 발견한 즉시 바로 고쳐야 한다.
- ②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윗글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집 - 고려 왕조
- ② 재목 - 정치를 하는 사람
- ③ 경비 -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
- ④ 비가 새는 상황 - 혼란스러운 당시의 정치 상황
- ⑤ 우선 집을 수리하는 일 - 무인정권을 배척하는 일

가락고등학교 (서울)

4. **⑥과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을 모두 고른 것은?**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사후 약방문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 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 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동방고등학교 (대전)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추리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 ②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혼란한 사회를 비판한다.
- ③ 타인의 견해를 인용한 뒤 그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 ④ 사물의 주관적 외양 묘사를 통해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계한다.
- ⑤ 사회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은 고려 왕조를 말한다
- ② ㉡은 혼란스러운 정치를 말한다.
- ③ ㉢은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
- ④ ㉣은 나라의 인재를 말한다.
- ⑤ ㉤은 백성들의 고통을 말한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7. 위 글의 전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휘어진 나무는 어릴 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성장한 다음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때 잘못을 고쳐야지 성인이 된 후에는 고치기가 어렵다.
- ②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 수단이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 ③ 소설에서의 개연성이란,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가능성을 말하는 개념이다.
- ④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약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 ⑤ 로봇은 인간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로봇 중에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도의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도 있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8.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서 문신들은 학문적 수준이 낮은 무신들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의 글'에 나타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가 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무인 정권에 참여한 것은 두고 동료 문신들은 이규보를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위 글을 썼다고 가정하고, 위 글과 '아래의 글'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1)~(3)에 답하십시오.

성동고등학교 (서울)

13. 윗글이 쓰인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때 글에 사용된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 고려 왕조
- ② 재목들 : 나라의 인재들
- ③ 나무가 썩음 : 무인 정권
- ④ 경비 : 백성들의 부담, 고통
- ⑤ 비가 샘 :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성동고등학교 (서울)

14. 윗글에서 경계하는 상황을 나타낸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시지탄(晩時之歎) ② 망양지탄(亡羊之歎)
- ③ 비육지탄(髒肉之嘆) ④ 유아지탄(由我之歎)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A)

양명고등학교 (경기)

15.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글쓴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 ②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글쓴이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 ③ 행랑채를 수리한 일에서 얻은 깨달음을 어디에 적용하였는가?
- ④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 ⑤ 글쓴이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어디인가?

양명고등학교 (경기)

16. 글쓴이가 다음의 상황과 관련하여 위 글을 썼다고 보고, 위 글에 쓰인 소재와 상징하는 바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에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기와 : 권력자
- ② 재목들 : 나라의 인재
- ③ 비가 새다 :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다, 나라가 어려워지다
- ④ 경비 : 백성들의 부담, 고통
- ⑤ 집 : 고려 왕조

양명고등학교 (경기)

17. 위 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런 상황이야말로 안 되는 놈은 집을 지어도 기둥이 부러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이 글은 글쓴이가 허구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어.
- ③ 글쓴이는 잘못을 빨리 알아 고쳐 나가는 자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부지런한 부자(富者)는 하늘도 못 막으니 부지런히 일하라는 얘기군.
- 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절차와 순서가 가장중요하다는 얘기군.

Ⅲ-2 시조 세 수

1.① 2.④ 3.④ 4.④ 5.② 6.⑤ 7.④ 8.③ 9.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가 있음. 10.② 11.② 12.① 13.④ 14.⑤ 15.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각화함. 16.시조의 4음보를 바탕으로 함.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각화함. 17.③ 18.⑤ 19.③ 20.시어를 좌우로 배치하여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각화함. 21.⑤ 22.④ 23. (1) 시어: 백설, 의미: 고려의 유신 (2) 시어: 구름, 의미: 조선을 건국하려는 신흥세력 (3) 시어: 매화, 의미: 고려를 지키는 충신, (4) 시어: 석양 의미: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 24.③ 25.⑤ 26.① 27. ② 28.② 29.② 30.①

Ⅲ-2 산유화

1.③ 2.② 3.③ 4.② 5.④ 6.㉞ 갈 봄 여름 없이 ㉞ 작은 새 7.① 8.③ 9.② 10.② 11.① 12.⑤ 13.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표현하여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냄 14.② 15.① 16.(1)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의미한다. (2) 산에는 꽃 ~네 / 꽃이 ~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네 17.(1) ㉞ 문학 작품 ㉞ 내용 ㉞ 형식 (2) 수미상관과 3음보의 배열 등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고 시를 옆으로 누이면 시의 형태가 산 모양이 되어 시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8.③ 19. ① 20.② 21.① 22.② 23.③ 24.④ 25.⑤ 26.④ 27.둘다 3음보임. 28.③ 29.② 30.③ 31.⑤

Ⅲ-2 이생규장전

1.⑤ 2.죽은 '최 씨'가 등장하여 이승의 '이생'과 만나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3.④ 4.① 5.④ 6.⑤ 7.①② ③ 8.② 9. (1) 인물과 사회 (2) 인물과 사회 (3) 인물과 운명 (4)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0. (1)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네 (2) 흥건적의 침입 때문에 최 씨가 죽게 되었다. (3)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④ 12.④ 13.④ 14.④ 15.② 16. ④ 17.③ 18.① 19.④ 20.(1) ㉞ 최 씨 ㉞ 두 번의 이별 (2)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을 암시한다. 21.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22.② 23.② 24.③ 25.③ 26.④ 27.③ 28.④ 29. ④ 30.② 31.② 32.③ 33.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34.④ 35.③ 36.② 37. 이생과 최씨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사랑으로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

고 있다. 38.(1) 흥건적의 난 (2)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39.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40.①⑤ 41.③ 42.① 43.④ 44.④ 45.⑤ 46.② 47.③ 48.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봉건적 사고와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사랑과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9.① 50.⑤ 51.③ 52.죽은 최씨가 환생하여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는 시절 53.③ 54.④ 55. ②

Ⅲ-2 엄마의 말뚝 2

1.④ 2.④ 3.③ 4.③ 5.③ 6.④ 7.② 8.③ 9.② 10.①⑤ 11.⑤ 12.③ 13.③ 14.④ 15.④ 16. ㉞저승사자, ㉞군관, ㉞아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④ 22.④ 23. ① 24.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5.④ 26.② 27.㉞: 남북 분단에 따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 ㉞: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 28.과거의 아들이 어머니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현재 환각으로 겪게 됨. 29.⑤ 30.③ 31.④ 32.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33.④ 34.② 35.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 36.② 37. ③ 38.③ 39.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Ⅲ-2 이옥설

1.③ 2.① 3.⑤ 4.④ 5.① 6.③ 7.① 8.(1)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9.② 10.① 11. 잘못